

정부, 교육교부금 쪼개 대학 지원... 교육계 “졸속 정책” 반발

정부 “교육부문간 균형있는 투자”
교총 “학생 교육환경 여전히 열악”
시·도교육감들도 반대 가능성 커

윤석열 정부가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초·중·고등교육 분야 주요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손질하는 방안을 내놓자 교육계가 한목소리로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6일 새 정부 경제 정책 방향을 통해 학령인구 감소와 미래인재 육성 투자수요 등을 감안해 교육부문간 균형있는 투자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현재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구성되며 유초·중등교육에만 투자되고 있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와 맞물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를 줄이거나, 지방소멸과 함께 어려움을 겪는 지방대학 재정 확충 등을 위한 제도 개편을 예고했다.

다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규모를 줄이기보다는 고등교육 부문에도



2022년 6월 전국연합학력평가날인 지난 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여자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뉴스시스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를 위해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고쳐 대학도 교부금의 수혜기관에 포함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법적인 교부금을 건드린다는 의미는 아니다”면서 “고등교육까지는 교부금이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활용도, 대상을 넓힌다는 측면에서 보면 된다”고 말했다.

한국교총(교총)과 전국교직원노동

조합(전교조) 등 국내 주요 교원단체들은 정부의 이런 발표 이후 각각 설명을 내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총은 “유초·중등 학교 현장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학생 교육환경은 열악한 상황”이라며 “유초·중등 교육교부금을 축소하려 할 게 아니라 대학 재정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통해 확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학생이 감소해도 학교, 학

급, 교원이 늘어 재정 수요는 더 많아지는데도 재정 당국은 아직도 학생 수가 감소하니까 교부금을 줄여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현재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니까 국가 예산도 줄여야 한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교총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은 특성화고 지원, AI·메타버스 기반 교육 강화, 고교학점제 대비 교원 확충 등에도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는 미래 교육환경 구축에 찬물을 끼얹고 교육을 과거로 회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코로나19에 따른 교육 회복과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등 교육여건 개선이 시급한 때에 유초·중등 교육 예산을 줄여 고등교육 예산으로 활용하겠다는 발상은 아랫돌 빼서 윗돌 끼는 식”이라며 “새 정부 경제 정책 방향으로 제출한 저출산 대응, 지방소멸 대응을 말하면서 초·중등 교육 예산을 줄이라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교사노조연맹도 “지방재정교부금을 고등교육 재정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은

저출산, 초고령 시대 진입을 앞두고 인구절벽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복지 확대가 무엇보다 필요한 국가적 과제라는 것을 망각한 졸속 정책으로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예산을 축소될 경우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대신 학생 교육에 직접 투입되는 예산부터 줄여줄 것이라 우려도 나왔다. 교총은 “학교회계의 대부분은 인건비, 시설비, 기관운영비 등 경직성 예산이며 학생교육활동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경비는 지금도 부족하다는 게 학교현장의 목소리”라며 “교육예산을 축소하면 경직성 경비는 손댈 수 없으니 학생들에게 투입되는 예산부터 삭감될 것”이라고 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집행하는 시·도교육감들도 정부의 이 같은 방안에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시도교육감협의회장에 당선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최근 “초·중등교부금을 대학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감들께서 부정적”이라며 “고등교육교부금특별법을 만들든지 해서 해결할 문제”라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서울과기대, ‘SDGs-ESG 비전’ 선포

대학경영 전반에 ESG경영 추진
지속가능한 고등교육 생태계 구축

서울과학기술대학교(총장 이동훈)가 최근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지속가능발전목표) 실현을 위한 ESG경영을 대학경영 전반에 도입하고 ‘SDGs-ESG 비전’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비전 선포는 대학 운영에 사회적·윤리적 가치를 반영하여 국립대학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지속가능한 고등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서울과기대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SeoulITech’라는 SDGs-ESG 비전을 선포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UN의 SDGs 개념을 대학발전계획과 연계한 17개의 실행과제를 설정하여 ‘SDGs 실현을 위한 ESG 활동(STECH SDGs-ESG Activities)’을 추진할 예정이다.

가치 창출 분야는 ▲교육 ▲연구 ▲외부리더십 ▲운영&거버넌스 등이며, 주요 실행과제로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포용적 인재 양성(ESG 함양을 위한 교육) ▲URBAN BENCH 역할 수행(지역사회와 협력·상생) ▲Eco-Friendly 캠퍼스 구축 등을 설정했다.

서울과기대는 오는 7월 SDGs-ESG 위원회를 출범하여 SDGs-ESG 활동 관련 정책 수립 및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ESG의 가치를 대학 및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할 예정이다.

이동훈 총장은 “서울 유일의 국립종합대학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과 국제사회를 위해 ESG의 가치를 확산하고자 한다.”라며, “SDGs-ESG 비전 선포를 시작으로, ESG에 대한 융합적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협력하며, 사회적 가치 창출을 선도하는 대학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제2회 한국비교과교육학회 학술대회’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순천향대

순천향대, 韓 비교과교육학회 학술대회 개최

70여 개 대학 100여 명 관계자 참여

순천향대(총장 김승우)는 최근 교내 유니토피아관 CK홀에서 ‘제2회 한국비교과교육학회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비교과를 통한 미래역량 INSIGHT’를 주제로 70여 개 대학 100여 명의 관계자가 참여했다. 비교과를 통해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고취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

고 그간 연구성과의 공유를 통해 대학간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날 행사는 김재필 교학부총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송병국 교수(순천향대 교육대학원장)의 기조 강연(‘뉴노멀 시대 역량 중심 교육과정과 비교과 활동’) ▲송영선 교수(건국대 글로벌캠퍼스)의 정책연구(‘전국대학의 비교과프로그램 분석과 정책 제언’) 발표가 이뤄졌다.

/신하은 기자

세종대, 상품학회 춘계학술대회 ‘우수상’

상품학 전반에 걸친 연구 발표

세종대학교(총장 배덕효) 경영학과 학생팀이 한국상품학회 2022 춘계학술대회의 마케팅 브랜드 분과 논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코로나 이후 기업의 상품전략, 고객행동의 변화 등 상품학 전반에 걸친 연구 발표를 위해 마련된 행사다.

이번 대회에는 200명이 넘는 회원들이 참석했으며 9개 분과에서 총 47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9개 분과 주제는 ▲마케팅과 브랜드 ▲생산과 서비스 ▲디자인 ▲문화와 관광축제 ▲국제통상 ▲IT상품 ▲상품유통 ▲Art & Entertainment 상품 ▲세계화였다.

세종대 경영학과 박서현, 윤해림, 임성아 학생으로 구성된 팀은 윤호정 교

수 지도하에 마케팅 브랜드 분과에서 논문을 발표했다.

경영학과 학생팀은 모바일 광고 유형 중 푸시 알림이 사용자 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발표했다. 또한 푸시 알림의 유형을 금전적 알림과 비금전적 알림으로 구분하여 각 알림이 사용자 몰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모델 결과도 제시했다.

경영학과 학생팀은 사용자는 금전보상과 연관된 알림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금전과 연관이 없는 특정 유형의 알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음을 밝혔다.

이번 연구 발표는 푸시 알림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모바일 앱 사용자 행동 데이터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푸시 알림의 종류를 세부적으



(왼쪽부터) 윤호정 세종대 교수, 박서현, 윤해림, 임성아 학생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세종대

로 나눠 각 유형별 효과를 측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박서현 학생(세종대 경영학과)은 “이번 학술대회에서 우수상을 받게 되어 기쁘다. 논문 지도를 해주신 윤호정 교수님과 논문 발표를 함께 준비한 팀원들에게 감사하다. 앞으로도 학술대회에 참석해 인사이트를 얻고 좋은 연구 주제로 발표하는 자리를 갖고 싶다”라고 말했다.

/신하은 기자

서울시교육청, 채식 위한 ‘그린급식바’ 운영

먹거리 생태전환교육 추진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 산하 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보건진흥원(원장 임영식)은 지나친 육식 위주의 식습관을 개선하고 채식 급식을 먹을 수 있는 급식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76개 학교에 그린급식 바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급식이 갖는 교육적 기능에 더욱 주목하며 먹거리의 생산부터 소비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학생의 건강뿐 아니라 생태계의 건강을 고려한 ‘먹거리 생태전환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2022 먹거리 생태전환교육 기본계획을 각급 학교에 안내했고, 교육환경 내실화 지원의 일환으로 채식선택제 운영이 가능한 그린급식 바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육식을 선호하는 학생들의 입맛을 개선함으로써 육식으로 인한 탄소배출을 줄이고 아울러 육식 섭취가 어려운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교육적 가치를 담고 있다.

그린급식 바 설치학교에는 교당 2백만원의 예산이 지원되는데, 이 예산으로 설치비, 운영비, 채소 구입비, 그린급식 바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다.

/신하은 기자